

신문개혁 6월투쟁 불붙었다

지역신문발전지원법, 신문독과점규제법 등 3대신문개혁법안 입법 촉구

초여름 장맛비도 1만 8천 언론노동자들의 신문개혁 총력투쟁의 의지를 막지 못했다.

23일 낮 12시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언론재단 앞마당에서 열린 '2003 6월 신문개혁 총력투쟁 선포식'에 모인 600여명 조합원은 "신문개혁 투쟁은 신문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 이상의 의미를 띠고 있다"면서 "사회를 개혁하는 투쟁이자 언론을 국민의 것으로 돌리는 투쟁"이라고 선언하며 이날부터 28일까지를 집중 투쟁기간으로 삼고 본격적인 언론 개혁투쟁을 시작했다.

우리조합원 15명을 포함해 부산, 광주, 마산, 대전, 인천, 수원 등 전국 50여개 지부에서 모인 조합원들은 쏟아지는 빗속에서도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신문개혁 투쟁의 의지를 드높였다.

이들은 식전 행사에 이은 1시간 30분동안의 선포식을 마친 이후 명동성당까지 거리행진을 하며 시민들과 함께 신문개혁의 정당성을 되새긴 뒤 정리집회를 갖고 오후 3시 30분쯤 해산했다.

이재후 아나운서(KBS본부)와 이명희 아나운서(CBS지부)의 사회로 치러진 이날 선포식에서 언론노조는 ▲지역신문발전지원법 ▲신문독과점규제법 ▲정기간행물법 등 3대 신문개혁 법안의 제·개정과 ▲신문고시 공배제 등 신문시장 정상화를 정치권에 촉구했다. 이를 위해 오는 9월 정기국회 회기까지 정치권을 압박해 3대 신문개혁 법안을 제·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신문개혁 요구를 거부하는 정치인은 내년 17대 총선에서 선거투쟁을 통해 강하게 압박하는 투쟁 프로그램 등을 집회 참석자들과 공유했다.

전국언론노조 신학림 위원장은 대회사로 통해 "오늘 쏟아지는 비는 신문개혁 투쟁을 진행하는 우리의 앞길에 놓여있을 시련과 고난을 상징하는 것 같다"면서 "이왕 올 것이면 왕창 쏟아져서 신문개혁 투쟁이 승리할 수 있는지 한 판 겨뤄봤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조합원들의 투쟁의지를 드높였다. 신 위원장은 "신문개혁 투쟁의 길에는 앞으로 크고 작은 많은 장애물이 놓여있을 것"이라면서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밀고 나가 신문개혁, 사회개혁을 반드시 완수하자"라고 조합원들을 독려했다. <2면에 계속>

알림

이번호부터 열린소리는 전국언론노조 신문통신노조협의회 공동노보단이 만드는 '6월 신문개혁 투쟁' 공동 콘텐츠로 꾸며집니다. 열린소리는 향후 공동노보단과 보조를 맞추며 노보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민주노총 유덕상 수석 부위원장은 연대사를 통해 “왜곡된 여론을 전달하고 노조를 짓밟고 있는 조·중·동을 중심으로 한 수구보수 신문들에 대해 노동자들은 대단한 피해의식과 불신을 갖고 있다”면서 “신문 노동자들이 앞장서서 신문을 바로잡아 반개혁적이고, 반민주적, 반인권적, 반통일적, 반평화적인 신문들이 우리 사회에 발딛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유 부위원장은 “신문개혁 투쟁이 그처럼 중요한 만큼, 신문노동자들만의 투쟁이 아니라 민주노총을 비롯한 전국민이 함께 투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뜨거운 연대 투쟁의 의지를 밝혔다.

전국언론노조는 이미 지난 18일부터 사흘동안 한국언론재단 앞에서 천막을 치고 신문개혁을 위한 신문 지부 위원장단 철야농성을 진행하고 대국민 홍보전을 벌였다.

이후 24일부터는 신문개혁 투쟁 4대 쟁취 과제에 대해 연속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며, 이 기간동안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한국신문협회, 문화관광부 등에 항의방문 투쟁을 전개한다. 또한 27일에는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신문개혁 3대 법안 쟁취 결의대회, 신문개혁 시민문화제를 가진 뒤 28일에는 ‘신문개혁 완수를 위한 언론노동자 결의대회’를 벌이며 중단없는 신문개혁 투쟁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위기의 지역언론 “개혁없인 살길없다”

24일 프레스센터 토론회서 학계 시민단체 언론인 등 한 목소리

위기의 지역언론, 어떻게 개혁하고 육성할 것인가?

24일 서울 프레스센터 외신기자 클럽에서는 학계, 시민단체, 현직 언론인 등 언론 관련 전문가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언론육성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가 벌어졌다.

동의대학교 문종대 교수는 이날 발제에서 “언론사의 활동이 국민의 언론자유 실현에 실패한다면, 이를 더 잘 실현시킬 수 있도록 정부가 언론시장에 개입해야 한다”며 “이런 의미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지역신문개혁연대의 지역신문발전법 제정 제안은 설득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지역 언론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지역의 여론이 ‘기형적 언론시장구조’에 의해 왜곡되거나 차단당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정당한 정책적 개입”이라며, 법 제정의 명분과 타당성을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장호순 순천향대 교수는 “지역언론 개혁에 대한 공감은 형성돼 있지만 지원에 대한 동의는 아직 구하지 못했다”고 진단한 뒤,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살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이 ‘자신들이 보고, 듣고, 감시해야 할 언론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현 상황은 언론자유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는 점을 적극 부각시켜 나갈 것을 제안했다.

임동욱 광주대학교 교수는 “지역 신문 육성에는 전적으로 찬성하지만 지원이 필요한 신문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에 대한 회의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육성과 개혁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언론 육성은 집단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약자의 편에서 한국사회의 모순과 부조리 개혁을 위한 것이라니 점을 짚고, “지역언론 개혁 추진세력들이 건강한 눈으로 감시와 견제·비판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일침을 놓았다.

우희창 대전충남 민언련 사무총장도 지역언론 활성화의 전제조건은 지역 언론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해서라고 전제하고, “지역언론육성법 시안은 일정 개혁을 담보로 지원해 주겠다는 것”임을 강조했다.

특히 지역 신문은 더 이상 약자가 아니라 지역 기관·권력자·기업의 방패막으로 활동하고 있는 지역 언론인들의 의식개선 및 부조리한 관행 등의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순기 언론노조 지역언론특위 위원장은 “이번 기회에 지역 일간지에 대한 모든 문제점이나 부조리에 대한 대안과 대책이 세워지는 발전적 방향으로 전개되길 바란다”며 지역 신문들이 행하고 있는 지역내 권원유착에 대한 감시·견제·비판을 앞으로도 경청할 것을 약속했다.

전국민중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향신문사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신문개혁 6월 투쟁’의 일환으로 오는 27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신문개혁을 비를 타고...



장대비 속 400여 언론노조 조합원 “신문개혁 쟁취” 한목소리

언론노동자들의 신문개혁 의지만큼은 장마비도 어찌하지 못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 비를 뿌렸다. 한창 맑았던 초여름 날씨는 23일 전국언론노조의 ‘2003 6월 신문개혁 총력투쟁 선포식’에 때맞춰 장마전선을 북상시키며 신문개혁 투쟁 준비 일꾼들을 긴장시켰다. 아침부터 어김없이 비는 뿌려졌고, 선포식 시간이 다가올수록 빗줄기는 굵어졌다. 부랴부랴 비옷 준비상태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미리 준비한 점심 도시락 김밥을 한국언론재단 로비에서 먹을 수 있도록 지부 일꾼들에게 지시하긴 했으나 불안감은 커지기만 했다.

언론노조 한 일꾼은 “비온다고 밥 안먹나? 비가 와도 신문개혁 투쟁은 흔들림없다” 라면 애써 태연하게 말했으나, 집회 참가 예상 인원이 반 가까이 줄어들지 않겠냐는 우려를 감추지는 못했다.

우려했던대로, 야속하게 퍼부은 장맛비는 집회에 참가하려 했던 제민일보의 비행기 날개를 꼭 붙잡았고 이밖에 경남도민일보 등 일부 지역 지부 조합원들의 자동차 앞길도 가로막았다. 하지만, 집회에 참석했던 50여개 지부 600여 조합원들은 아예 장대비가 돼버린 장맛비에도 아랑곳없이 하얀색 비옷을 입고 의연하게 신문개혁 총력투쟁 선포식, 그 장대한 첫 걸음을 함께 했다. 조합원들은 본 행사에 앞서서 진행된 울동패 ‘몸짓 선언’의 울동에 맞춰 ‘불나비’, ‘님을 위한 행진곡’ 등 노래를 함께 부르며 신문개혁 가는 길이 어렵고 험난하겠지만, 즐겁고 유쾌하게 할 수 있음을 온 몸으로 보여줬다.

한편 경향신문 윤성노 지부위원장은 노래를 부르고 구호를 외칠 때마다, 무대 바로 앞에 나와서 집회 참석자들이 들고 있는 ‘GO 언론개혁’이라는 구호 수건을 접었다 폄다하며 집회의 흥겨운 분위기를 주도해 참석 조합원들의 찬사를 받았다. 굵은 비를 피하기 위해 나무밑으로 피하는 참석자들이 하나둘 생기자 갑자기 대오 앞으로 튀어나온 윤지부위원장은 비옷의 모자까지 벗어젖히고 반쯤 흰해지고있는 머리가 빗줄기에 노출되는 것까지 감수하는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 ‘모범 일꾼’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제민일보 김협철 지부위원장은 “다섯 명 정도 올라오려했는데, 비 때문에 비행기가 뜰 수 없어 참석하지 못했다”면서 “27일 및 28일 집회에는 반드시 결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아쉬움속에서도 이후 신문개혁 투쟁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밝혔다. 반면 언론노조 관계자는 “없는 언론노조 살림에서 제주 지역 조합원 한 사람이 투쟁에 동참할 때마다 20만원씩 들어간다”면서도 “어쨌든 지역에서 신문개혁 투쟁에 적극 동참하는 의지를 갖는 것은 아주 기쁜 일”이라고 약간의 곤혹스러움을 나타냈다. 한편 현재 임·단협을 진행하는 등 쉽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언론재단지부(지부위원장 이준승)는 이날 신문개혁 투쟁 선포식 참가자들을 위해 생수를 1000통 기증하기도 했다.

명동성당에서 가진 정리집회는 10여분만에 속전속결로 끝났다.

특히 언론노조 현상윤 수석부위원장이 5분에 걸쳐 조·중·동 등 수구보수언론의 문제점, 신문개혁 투쟁의 정당성에 대해 특유의 격정적 대중연설을 토해낸 데 이어 등장한 한겨레 홍세화 기획위원이 “저도 언론노조원의 한 명으로서 신문개혁 투쟁에 열심히 동참하겠다”는 딱 한 줄의 정리 연설을 해 사람들을 순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곧 홍 기획위원의 의도를 파악한 뒤 모두들 웃음을 지었다. 언론노조 집회 참석자들 모두 ‘집회는 짧게, 투쟁은 길게’라는 금과옥조의 명제를 다시금 떠올렸다.

이에 앞서 집회를 마칠 때쯤 조금씩 가늘어지던 비는 명동성당까지 행진을 하고, 정리집회를 시작할 때는 완전히 그쳤다. 신학림 위원장이 대회사에서 ‘오늘 비는 앞으로 신문개혁 투쟁에 닥칠 고난과 시련을 상징하는 것 같다’고 말했는데, 신문개혁 총력투쟁 선포식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신문개혁 총력투쟁을 예고하자 비가 뚝 그쳤다.

장맛비도 신문개혁 투쟁 기세에 겁을 먹었음에 틀림없다.



신문개혁의 그날까지 투쟁의 깃발을!



지난 23일 한국프레스센터 앞 마당에서는 장대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2003 6월 신문개혁 총력투쟁 선포식이 열렸다. 참가자들은 이날 지역신문발전지원법, 신문독과점규제법, 정기간행물법 제·개정 등 신문개혁을 요구한 뒤 명동성당까지 거리행진을 벌였다.

